

은행 기타대출 '사상최대치' 기록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대출 수요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현상

8·2 부동산 대책에도 8월 한 달간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급증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 수요의 신용대출 풍선효과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개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003년 카드대란 때보다 많아지는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44조2000억원으로 전월대

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 증가해 7월(4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 7월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4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8월에는 이런 수요가 줄어들어 영향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8월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 늘어난 7월(1조9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3년 카드대란 때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며 "휴가철 자금 수요 증가, 일부 은행의 금리우대상품 출시,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개시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기관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이런 현상이 기대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 기타대출 증가액 3조4000억원은 주택담보 증가액 3조1000억원을

앞질렀다. 이는 지난 2011년 5월(주택담보 1.9조 증가, 기타대출 1.9조 증가) 이후 처음 나타난 역전 현상이다.

여기에는 8·2부동산대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가 줄고 기타대출이 늘어 모양새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달에 특정 한계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커서 전반적으로 주택담보가 늘어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은행들의 건전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역 중소기업 제품 1200만 불 수출 협약 MOU 체결

베트남에 전북 16개 기업 파견, 수출 판로개척 지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동환)과 전북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전주대 창업지원단, 원광대 창업지원단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전북 지역 16개 기업의 제품 1천2백만불 규모의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5년부터 글로벌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여 수출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역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우리 전북지역의 16개 기업 파견을 지원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참여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기업 아이템 검증과 경쟁하고 바이어 특성에 맞도록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해 왔으며 베트남 출국 전 2

회 바이어 상담 및 마케팅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정 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시장개척단에 참여 및 MOU 체결 건수는 아나나라 5건, (유)천연담자 2건, 아이에스티케이3 6건, (유)깃들 2건, 씨니헬프 2건이다. 주로 식품과 기능성 건강식 등 다양한 품목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유)천연담자 전재직 대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통해 베트남 바이어들과 밀접한 접촉을 진행했었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신규 발굴한 바이어와 2백만불 규모의 상담 및 MOU 체결을 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홈쇼핑 및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제품판매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이동환 창업지원단장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전북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전주대 창업지원단, 원광대 창업지원단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전북지역 16개 기업의 제품 1천2백만불 규모의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며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NH투자증권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 NH투자증권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광고 공모전의 주제는 '연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 모바일증권 나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수익률 1위

NH투자증권 대학생 광고공모전 개최

로보어드바이저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주식거래 ▲비대면 최초 신규고객은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메시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고, 프로모션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모집하며 38개를 선정한다. 대상 상금 500만원, 총 상금 2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최우수 수상자 3명에게는 NH투

자증권 인턴십(4주) 기회가 주어진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품은 오는 10월 16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nhinvest.com)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된다. /뉴시스

"갤럭시노트8 중국 시장 공략 힘쓸 것"

삼성, 사전판매량 7일부터 12일까지 65만대 판매

삼성전자가 하반기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의 사전판매량이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65만대 가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강남 서초사옥에서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전판매 시작 이후 5일간 65만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8일간 예약 판매가 진행이므로 약 80만대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는 전작 노트7 대비 2.5배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사전판매를 앞둔 삼성전자는 국내 미디어에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갖고 하반기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고 사장은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질문에 "무선사업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에 올해 책임자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핵심 거센 선점 작업 등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리라 보고, 반드시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을 표명했다.

고 사장은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질문에 "무선사업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에 올해 책임자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핵심 거센 선점 작업 등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리라 보고, 반드시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을 표명했다.

고 사장은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질문에 "무선사업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에 올해 책임자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핵심 거센 선점 작업 등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리라 보고, 반드시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시행방안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에 따르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

했다.

다만 "완전자금제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유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단할 수 없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회사라 한국 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유류 시장 붕괴의 우려로 유류 쪽 고통이 클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35개 농작목 중 파프리카 소득 '최고'

전북농업기술원은 전북지역 주요 35개 농작목 중 착색단고추(파프리카)가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작목은 착색단고추(파프리카), 너타리버섯, 시설가지, 반축성재배 토마토 4개 작목이다.

또 노지오이와 대파, 가을배추 등 15개 농산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북농기원이 2016년산 주요 35개 작목을 재배하는 495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작목은 인삼, 시설상추, 축성재배 딸기 등 3개 작목으로 조사됐다.

전북농기원은 이들 농가에 대한 생산량과 수취가격,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등 경영비용을 조사해 분석했다. 조사대상 작목 중 착색단고추(파프리카)는 10a(1000㎡)당 1421만2000원의 소득으로 가장 높았고 너타리버섯은 1249만2000원, 시설가지 1124만18000원

2015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노지오이, 대파, 가을배추 등 15개 작목이며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시설감미, 땅콩, 봄감자 등 19개 작목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농기원은 2016년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를 농장의 경영 설계와 진단 등 농가 경영개선과 농장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지도 및 상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